

‘의리의 사나이’ 조재현

‘아망의 전설’ 김영진 PD와 인연
영화 데뷔작, 무조건 출연 약속

배우 조재현이 아직 시나리오조차 완성되지 않은 작품에 무조건 출연을 약속한 사연은 필카.

조재현은 최근 KBS 김영진 PD가 감독을 맡게 될 ‘초원의 집’(가제)이라는 영화에 무조건 출연하기로 했다.

김 PD는 2000년 유학을 마친 부인을 데리러 미국에 갔다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의 증상을 입은 바 있다. 천신만고 끝에 지난해부터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걸어도닐 수 있게 됐다. 물론 여전히 재활 치료 중이다.

김 PD와 조재현의 인연은 김 PD의 연출 데뷔작 ‘아빠는 조감독’부터 시작돼 1990년대 후반 큰 인기를 모은 ‘아망의 전설’로 이어졌다. 사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김 PD와 인연을 맺어왔던 조재현은 김 PD가 영화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무조건 출연’을 약속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투자까지 구해왔다. 이 영화는 싸이더스FNH에서 기획했는데 최근 자체 사정으로 이를 포기해 투자자를 찾기 어렵게 되자 평소 친하게 지낸 허태영 배어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샌추리온 창투 대표를 소개해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끈을 놓았다.

조재현은 “사고 당시 촬영이 있어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를 미국에 보냈는데 아무런 의식이 없던 김 PD가 아내가 손을 잡자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며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건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영화 출연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어미 사랑학교’ 명예 학교장 국훈 화순 전남대병원 교수

“투병 환아, 유급 불이익 안돼죠”

“장기간 입원해 있는 소아암·백혈병 아이들을 위한 병원 학교는 제가 소아과 전문의가 된 17년 전부터 가져온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투병중인 아이들이 병원 내에 마련된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무척 뿌듯하더군요.”

어미 사랑학교는 2개 교실에 개인용 노트북 10여대, 빔프로젝터, 전자철판 등 학습장비를 갖췄다. 수백여 종의 책과 교육보조자료가 마련돼 있고 소아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리큘럼에 따라 매일 3~4시간 개인별 수업이 진행, 정규수업으로 인정된다.

전남대의대 33회 졸업생인 국교수는 재생불량성 빈혈·소아 백혈병·소아암의 권위자로 불린다(광주일보 선정 이 분야 ‘베스트 닥터’). 이들 질병은 장기 투병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는 오랫동안 함께 고생하기 마련. 때문에 관계가 각별해 질 수밖에 없다. 그가 화순 전남대병원에 ‘병원 학교’가 개교되기까지 과정을 주도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소아암·백혈병 환자 75% 완치 가능

초등생 11명·중학생 12명 등록

국훈(46) 화순 전남대병원 소아과 교수는 최근 ‘교장 선생님’이란 호칭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지난달 28일 화순 전남대병원 내에 ‘어미 사랑 학교’가 정식 개교하며 명예 학교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어미 사랑 학교’는 지난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정규 과정으로 장기입원 치료중인 학생이 3개월 이상 수업을 받지 못해 유급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설치됐다.

“요즘 소아암·소아 백혈병의 75%는 완치 가능합니다. 완치 후, 정상적인 학교·가정·사회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그만큼이라는 얘깁니다. 퇴원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투병 중 ‘학교’ ‘선생님’ ‘친구’라는 소속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병중에도 소속감 반드시 필요”

국 교수는 “현재 어미사랑 병원학교에 등록된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2명이 모두 완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면, 의료진으로서 그보다 보람된 일이 또 있겠느냐”며 밝게 웃었다.

시인기자자 viola@kwangju.co.kr

지단·마테라치,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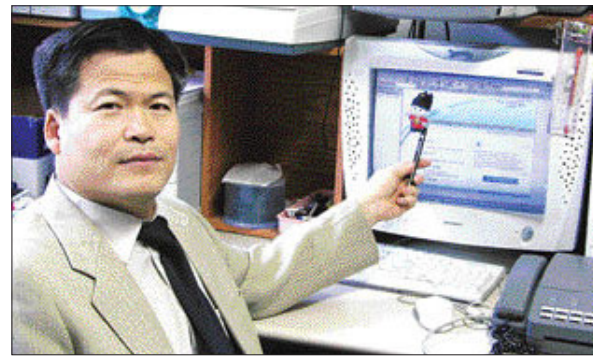


2006독일 월드컵 축구 결승전에서 ‘박치기 사건’을 일으켰던 지단(프랑스)과 마르코 마테라치(이탈리아)가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후보에 올랐다고 AP통신이 7일(한국시간) 전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지단과 마테라치를 비롯해 지난해 ‘올해의 선수’ 호나우지뉴(브라질) 등이 4만3천명의 선수 가운데 2006년을 빛낸 55명의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달 6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발표될 ‘올해의 선수’ 후보 중에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리그(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초성이·한글이’로 전화 거세요”

호남대 고갑천 교수 ‘한글 초성활용 운동본부’ 발족

한글 초성을 활용한 숫자 입력 방식을 개발한 교수의 ‘한글 사랑’이 이목을 끌고 있다. 호남대학교 환경원예학과 고갑천(48) 교수는 최근 업계, 학계 관계자 9명과 함께 ‘한글 초성활용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고 교수는 운동본부를 통해 20여년간 연구 끝에 개발했지만 무관심 속에 사장될 위기에 처한 한글 활용 숫자 입력 방식인 ‘초성이’와 ‘한글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초성이’는 1(ㄱ), 2(ㄴ), 3(ㄷ), 4(ㄹ), 5(ㅁ), 6(ㅇ), 7(ㅅ), 8(ㅇ), 9(ㅈ), 10(ㅊ) 등 각각의 숫자에 한글 자음을 짝 지어 힘들게 번호를 외우거나 찾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도록 고안했다. 가령 ‘사랑공장’은 전화번호 뒷자리로 ‘7319’로 등록한다면 사용자들은 ‘ㅅ7 ㄹ3 ㅁ1 9’만 입력하면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미 전화기 등의 숫자를 알파벳과 호환시켜 ‘5683’을 ‘LOVE’로 기억하기도 하는 영어권 국가의 글자 활용 방식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글은 초성만 활용할 경우 ‘당신을 사랑해요(378-7448)’처럼 같은 숫자 수에 다른 어떤 언어보다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고 교수의 설명이다.



전화번호 외에 PC 자판이나 전자식 잠금장치 등에도 이를 적용하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쉽게 찾거나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화된 사례는 극히 미미해 2002년 초성자음활용 전화기 자판 문자입력 체계와 전화난축 다이얼링 시스템 등 2개의 특허를 얻은 뒤 전화기 업체와 디지털 잠금장치 등이 2개 업체가 이 방식을 활용한 것이 전부이다. 고 교수는 한글의 장점을 살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을 우려, ‘초성이’에 모음 입력 기능까지 보완한 ‘한글이’를 휴대전화에 활용할 경우 생산업체에 특허권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20년전 어머니가 받은 훈장...뜻 깊어”

한글날 ‘문화훈장’ 받는 김영기 교수

한글발전유공자로 선정돼 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560회 한글날 기념식 때 옥관문화훈장을 받는 김영기(65)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교수는 8일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된 해에 훈장을 받게 되어 더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훈장 수상을 계기로 일시 귀국한 김 교수는 “무엇보다 20년 전 어머니가 받은 문화훈장을 받게 되어 이번 한글날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작고한 소설가 한무숙(1918-1993) 씨의 장녀.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와 1963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대와 하와이 주립대에서 언어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잇따라 받았다. 그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언어학과 부장직, 프랑스 파리 8대학 객원 연구원, 조지메이슨대 외국어문화학과 한국문화 강사 등을 거쳐 1983년부터 조지 워싱턴대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가 그를 한글발전유공자로 선정할 것은 40여년간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 보급에 힘쓴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 그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20여년간 한국어언어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 관련 5개 기금을 설치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었다.



농협 광주본부-결연마을 ‘만남의 날’ 행사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찬인)는 지난 4일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남구 대촌 일촌마을과 광산구 동곡 침산마을을 방문. 마을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종태기자 itlee@kwangju.co.kr

‘주얼리’ 박정아, 에이즈 예방 기금 마련 나서
최근 솔로앨범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여성그룹 저울리의 박정아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에 나섰다. 화장품 맥(M.A.C)의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박정아는 10월 오후 3시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맥 에이즈 기금 전달식을 열고 팬사인회, 입술찍기 행사 등을 펼친다. 맥은 이날 판매수익금 전액을 포함한 5천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이 금액은 국내 에이즈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에 지원된다. 박정아는 팝가수 이브, 리사 마리아 프레슬리 등 세계적 스타들과 함께 에이즈 기금 마련을 위해 특별 제작한 립스틱 ‘비바글립’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악마의 시’ 루시디 대학 강단 선다

소설 ‘악마의 시’로 유명한 인도 출신 영국 작가 살만 루시디가 대학 강단에 선다. 루시디는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학에 채용돼 2007년 봄부터 5년간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학 제임스 와그너 총장은 6일 “살만 루시디는 우리 세대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일뿐 아니라 인권의 자유의 용기있는 투사(champion)”라고 높이 평가했다. 루시디는 또 이란 당국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기록한 일기를 비롯해 미충한 소설, 작품 원고, 노트, 편지, 사진 등을 이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 ▲입내현(전 광주교감)씨 장남 지용군 임혼기체 차녀 지수양=12일(목) 오후 1시 서울 은누리교회 분당.
▲홍석태씨 장남 현호군 구인섭씨 장녀 정화양=14일(토) 낮 12시 에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우희씨 막내 석형(교사)군 김용효씨 장녀 유정(교사)양=15일(일) 낮 12시20분 버킹햄웨딩홀 3층 사파이어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견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후

- 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정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주 목·금요일. 652-1366, nam9939@dreamwiz.com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광주시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위탁 및 위탁 가정 상담.351-1206.1207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 이전=복구 응봉동 오지 한전 굴다리 앞 전일버스, 530-6114
- 동창·동문회
▲승원고 총동창회 한미음죽제=15일(일) 오전 9시 구 승원고 대문 동창. 010-7212-0085
- 중친회
▲전주리씨 대동중약원 광주전남도지원 이화회(회장 리수복) 월례회=10일(화) 오후 6시 광주전남도지원 회의실. 225-5631
- 모집
▲광주 CBS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독서지도교사·아나운서 취업반·재테크반·김원중 노래교실·문

- 인화 강좌 등 12개 강좌 수강생 모집. 개강 10월 17일. 376-8500
▲남구 레고교육센터 교육생 모집=베이비집(12~48개월)·스킬과정(5~7세)·테크닉과정(초등~중1~2년)·로봇과정(초등 2년 이상·중학생) 교육생 모집.봉선동 삼익2차 APT옆. 문의 654-4113
▲쌍촌종합사회복지관, 교육생 모집=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미용,제과·제빵, 피아노,컴퓨터 기초과정 및 자격증반. 문의 375-0035~6
▲직심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부로. 018-610-3360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일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한미음용장애인지리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복구 읍남동 체험반·재테크반·김원중 노래교실·문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 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계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회·도덕 과정)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원장 정혜영) 회원 모집=호펜션·커피·커피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곡공연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촌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회원 모집=통일 쌀 보내기